

“행복한 부부”

벤티3:1-7

사회 비평가인 존 러스킨은 "인류 역사는 세계의 역사가 아니라 가정의 역사이다. 한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의 가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고, 한 나라의 생존은 가정의 생존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정은 국가의 근본 세포를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많아야 건강한 국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단위는 부부입니다. 때문에 부부의 모습이 성경의 원리로 돌아갈 때 가정은 건강해지며 행복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1. 아내의 위치와 역할

부부 관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아내들이여”라는 표현처럼 항상 아내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가정에 부인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부관계를 말할 때 아내의 역할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 때문이요.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싫어하는 말 중의 하나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남녀 평등인데 왜 여자만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가부장적인 것입니다.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말을 합니까?” 라는 명분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라는 것은 무조건 남편 말에 따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순종의 참 의미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따르는 것입니다.

부부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만 하나님은 부부 사이에 분명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부부 사이에 남편이 머리 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에 머리가 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가정의 질서에 대해 하나님은 회사에서의 질서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에 순종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능력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기 때문도 아니요 지식적으로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회사가 세운 질서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세운 질서를 따라 남자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좀 부족해도, 까다로워도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위에 오르려 하면 안됩니다. 남편의 기를 꺾으려 하면 안됩니다. 까다로운 남편도 하나님 때문에 높여주어야 합니다. 남편을 굴복시키려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남편을 우습게 알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내는 실제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아내가 순복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는 아내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남편을 높일 때 믿지 않는 남편이 처음에는 핍박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믿는 아내는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꾸미는 것보다 마음을 아름답게 운유하게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값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심보감에도 어진 여인은 남편을 귀하게 만들지만 악한 여인은 남편을 천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가운데 수상을 세 번이나 지낸 유명한 정치가인 맥도널드는 자기 아내를 칭찬하기를 “신경을 쓴 일로 몹시 피곤하고 골치가 아파서 집에 들어가면 언제나 물결이 잔잔하고 안전한 항구를 찾아 든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싶은 절망적인 마음이 들 때에도 아내는 굳은 믿음과 확신을 주었으며,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었고, 마음에 평정을 가져다 주어서 또다시 재도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격려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내가 결혼 전에는 '천사' 이었다가 결혼 후에는 '전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좋은 전우가 되어 평생 남편의 격려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2. 남편의 위치와 역할

베드로전서 3:7 "남편된 자들아 이와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했습니다. '지식을 따라' 라는 것은 남편은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알아야 합니다. 아내의 감정과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아내가 좋아 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혼여성의 84%가 부부간의 친밀한 일체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연구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부인의 감정과 마음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몸도 마음도 연약합니다.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같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나눌 수 있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하며, 남편들이 오래 살기 위해서라도 부인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日 에히메대학 의학부 연구팀이 마쓰야마시 부근의 한 농촌을 중심으로 60~84 세 이상의 노인 3136 명을 4 년반 동안 추적 조사한 뒤 일본 공중위생학회에 보고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자는 '부인이 없는 경우'의 사망률이 '부인이 있는 경우'보다 80%나 더 높았습니다. 부인 일찍 죽으면 남자들 천대 받기 쉽습니다. 아내를 귀하여 여기십시오.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란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용서하고, 섬기고,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아내는 남편의 사랑 하나만 바라보고 삽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여자는 남편의 사랑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최고의 보약은 남편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부인의 얼굴은 못나도 밝고, 매사에 자신이 있습니다.

모든 남자에게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지 사랑을 조금도 표현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됩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돈은 애정표현의 중요한 척도입니다.

아내에게 돈을 맡기지 않는 남자는 아내를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생일날, 기념일등을 잊지 말고 꽃이나 케익 등 선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은 우선 아내에게 기쁨이 있어야 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행복해야 그 가정 또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이 한평생 행복한 가정에서 살기 원한다면 자기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무엇보다 가정에서 예수님처럼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아내들을 상대로 남편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남편의 신앙생활의 햇수가 1-5 년 미만은 37.5%, 6-10 년 미만은 60%, 10 년 이상은 80%라는 만족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할수록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3. 노력해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

미국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자였던 존 고트만 박사는 20 년 간의 부부생활에 대한 연구에서 밝혀 낸 그 성공의 비밀은 토마스 에디슨의 천재에 대한 정의와 같이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 요구되어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땀과 희생과 수고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인생의 차를 출발시켰거든 인생의 종국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도 핸들을 놓아서도 안되고, 바깥의 경치가 좋다고 해서 한눈을 팔아서도 안됩니다. 행복한 부부생활과 가정은 누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 힘을 써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견고한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자녀들에게도 계승하는 귀한 가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부부간에 각자의 생일, 처음 만난 날, 프로포즈를 받은 날 등 서로의 추억이 될만한 날짜를 서로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혹, 배우자가 곁에 계시지 않은 경우 배우자에 대한 좋은 추억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3. 부부간에 함께 살아온 세월을 통해서 확인된 배우자의 장점(칭찬) 3가지씩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혹은, 배우자가 나에게 최고의 배우자인 이유 - '곁에 계시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의 배우자였던 이유' - 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나누어 주시고, 배우자와 그 배우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4.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것(생활원칙, 선물 등) 1-2가지씩을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남아 있는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적용)하기로 다짐하도록 합니다. (내주에 각 가정마다 실천 적용 후 다음 모임시 발표)
5. 배우자에게 자필 편지를 써 보도록 합니다.(진심어린 사랑의 마음을 담아 진솔하게 써 내려가 보세요. 우편발송요망)